

숲정이

교구계간지

상백함

대림 제 3 주일
자선 주일

2009년 12월 13일 (다해)

1년 구독료 : 10,000원
후원계좌 전북 505-13-0313012

발행인 | 이병호 편집 |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제 1945호.

주소 | 560-110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78-3 전화 | 063)230-1004팩스 | 063)283-9365 <http://catholic.or.kr> E-mail | catholicdl4@hanmail.net



출처 : National Geographic.com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 루카 3,11 -

제 1독서 스바 3,14-18 그

화답송 이사 12,2-3.4느드르.5-6(® 6)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제 2독서 필리 4,4-7

복음 환호송 이사 6,1(루카 4,18 인용)

◎ 알렐루야.

○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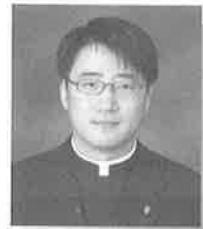
◎ 알렐루야.

복음 루카 3,10-18

영성체송 이사 35,4 참조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유정현 대건안드레아
(솔내 성당 보좌)

예수님께서 정말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한평생을 주님만을 기다려온 세례자 요한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주님께서 곧 오시니 회개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세례자 요한은 대상에 맞게 해야 할 일을 정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루카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한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당신과 늘 함께 하는 영광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 품에 당신의 자녀들을 모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 품에 모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신의 말씀을 새겨듣고 실천해야 합니



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주님, 주님!’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마태 7,21)라고 하셨으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마태 12,48) …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태 12,50)라고 하셨습니다.

다. 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해야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닦던 세례자 요한이 군중, 세리들, 군사들에게 각 대상에 맞게 그 자격을 일러 주신 것입니다. ‘나누어주고, 더 요구하지 말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루카 3,10-14 참조)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분 품에 모아질 수 있는가? 곧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에 우리의 자격이 얼마나 충분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맞이하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성실히 실행한 선한 자녀로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남은 대림시기를 충실히 보내도록 합시다.



성 암브로시오(340-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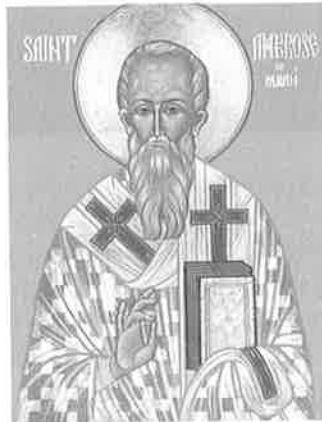
윤 클레멘트 신부

이탈리아 밀라노의 주보성인인 그는 독일의 트리에에서 태어나는데, 교회 역사상으로 유일하게 세례를 받기 전에 주교가 된 인물이다. 그는 로마에서 공부했고, 그가 밀라노의 주교가 될 당시에 북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리구리아 지방의 주지사였고, 밀라노는 로마제국의 중심도시였다. 당시 교회는 아리아니즘(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설)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교회에는 많은 세속적 힘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당시 밀라노는 아리아니즘을 따르는 주교 아우센치우스가 있었는데, 그 주교가 죽고 나자, 그의 후임을 둘러싸고 가톨릭교회와 아리아니즘을 따르는 세력간에 혼돈과 소요가 있었다. 그때 암브로시오는 밀라노 대성당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평화롭게 주교를 선택해야 한다고 연설을 한다. 그 연설 도중 누군가가 “암브로시오를 주교로!”하고 외치자, 곧 군중은 모두 그렇게 외치기 시작한다. 그는 두려움으로 숨으려다가 결국에는 군중의 뜻을 받아들인다.

그는 일주일 이내에 세례와 견진을 받은 후, 이어서 사제품과 주교서품을 받으니, 그날이 12월 7일이었다. 당시는 아직 교회의 교계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때라서, 그렇게도 사제와 주교서품이 가능했던가보다. 우리 교회는 그의 축일을 그가 지상을 떠난 4월 4일이 아닌, 그의 주교서품 기념일인 12월 7일에 지낸다.

세례를 받고 주교가 된 후 그의 생활은 전적으로 변한다. 땅은 교회에, 돈은 가난한 이들에게 다 준다. 그리고 그는 교회의 교부들과 성서를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는 단순한 생활을 하면서 심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한다. 또한 그는 그를 만나거나 찾아오는 이들에게 최대의 시간을 내주지만, 그 어떤 외적인 일도 그의 내적인 시간보다 우선하지는 않았다. 로마제국의 전 행정가로서 그는 그 도시의 정치적인 일들에도 영향들을 주게 되는데, 그는 황제 그라치안에게 아리아니즘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 주기를 요청하기도 한다. 한편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아우구스티노에게 신학과 교리를 가르치고 387년 부활절 이브에 세례를 준다.

그와 그의 교구는 한때 아리아니즘을 신봉하는 황제 발레티안 치세에 어려움을 겪고 위험에 처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그의 신념과 설교는 굳세고 한결같았다. 그는 황제 테오도시우스가 테살로니카에서 약 7천명의 군중을 학살한 사건 이후, 그가 회개와 고백성사와 보속을 하기 전에는 성체도 모실 수 없다고 강력하게 강론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는 동정녀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탁월하였다.

그는 많은 책들을 쓰고 남겼는데, 그는 자신이 가르쳤던 것들보다도 어려웠던 시대에 거룩한 교회와 그 가르침에 대하여, 부지런히 돌보았던 사람으로 더 기억되기를 바랐다. 그는 그가 평생 믿고 가르치며 지키려던 하늘의 그리스도를 향하여, 57세가 되던 해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성 금요일 날,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치고 복된 영원의 길을 향해 떠났다.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 평의회 간부연수 · 평가회

교구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지도=나궁렬 사목국장 신부, 단장=노혁)는 지난 12월 5일(토) 평의회 간부 연수 및 평가회를 교구청 4층 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날 평가회에는 90여 명의 간부들이 참석해 2009년도 운영 실적 평가, 우수 평의회 사례 발표, 2010년도 활동지침 발표, 교구장 이병호 주교 특강, 파견미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혁 단장은 “2009년도 활동 상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며 “2010년도에는 보다 발전하는 레지오 마리애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병호 주교는 2010년 특별 사목교서를 간부들에게 설명 하며 “레지오 마리애가 어느 면에서든 기둥의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하루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

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궁렬 신부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하느님과 일치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고,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길용운 기자

● 우림 성당 초등부 은총시장 및 꾸리아 연차 총 친목회

우림 성당(주임=김진화 신부)은 지난 12월 5일(토) 초등부 은총시장을 열었다. 성당 마당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날 맘껏 뛰놀 수 있는 프로그램과 많은 상품 및 먹거리, 놀거리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첫눈과 함께 따끈한 군고구마는 이날의 특별함을 더했다.

한편 12월 6일(주일)엔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의 단결과 우애의 정신을 복돋우려는 취지로 레지오 연차 총 친목행사를 가졌다. 참가자 모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윷놀이, 제기차기, 고리던지기 등 즐거운 놀이를 가졌으며, 매주일 미사 후 나눔의 시간에 쓸 군고구마 기금 마련을 위해 ‘군고구마 노래방’ 시간을 가져 웃음꽃을 활짝 피웠다.

|홍보국 정례

● 우전 성당 본당의 날 행사 및 레지오 마리애 연차 총 친목회

우전 성당(주임=박종상 신부)은 지난 12월 8일(화) 원죄 없이 임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본당의 날을

앞두고 12월 6일(주일) 본당의 날 행사를 열고 오후에는 레지오 마리애 연차 총 친목회를 개최했다. 본당의 날 행사에는 그 동안 본당을 위해 애쓴 신자들에게 기도상 1명, 공로상 1명, 봉사상 4명에 상장을 수여했고, 1년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찍었던 사진으로 영상을 만들어 상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윷놀이와 고리던지기, 간단한 다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창님 기자

● 우전 성당 보좌신부 대림절 특강

우전 성당(주임=박종상 신부)은 지난 12월 4일(금) 대림절을 맞아 이상욱 안드레아 보좌신부의 전례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보좌신부는 “전례란 교회가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행위로 미사, 성체강복, 십자가의 길기도도 전례가 되며 찬미의 예만 갖추어 진다면 전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자들이 지키고 알아야 할 예절, 참여자세와 궁금한 것에 대한 질의 응답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한창님 기자

성장 치료 전문한의원

성심 한의원

원장: 양선호(루카) · 김유미(엘리사벳)

E마트앞 BYC 빌딩 3층
063-273-9900

대장항문병 전문병원 장문외과

처질·변비·유방크리닉
전문의의 친·설·양(를가)
전문의의 안·해·서(시도요한)
전문의의 이·칠·종
www.jangmun.com
대표전화☎(063)834-6000
의산 영등동 육교 밀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

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팬션 예약 가능
T: 064)758-6476
010-4566-6476

전주태인시장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전주 MBC, JTBC, KBS 지정협찬사
TEL (063)231-1140~3
무료전화: 080-080-3303
대표 조일서(시도요한) 원장 양경순(예레사)

1급 전주월드컵 자동차 종합검사소

(자동차검사, 자동차 정비)-신자 우대
위치 : 서부우회도로 월드컵정기장옆
이원술 미카엘/박봉귀 프란체스코
문의 : 211-6644, 211-8884

젬 인 아트

전진아 (실비아)

한국정부자격보석감정사
미국GIA 다이아몬드 감정자격
미국MV 보석평가사 직영
462-7777 www.G1.co.kr

Balance 운동센터

12일(토) 12시 open

조매순(파비올라) · 이상억(요셉)
274-7545, 011-655-9312
서신중학교 정문앞 송도빌딩 4층

수지접합·무릎관절·어깨전문

성신정형외과

송천동 1가 송학아파트 옆
원장 하경환(대건 안드레이)
부원장 한용섭(무릎관절, 족부전문)
전화예약제 251-0700

● 금암 성당 견진성사

금암 성당(주임=서석구 신부)은 지난 12월 6일(주일) 교구장 이병호 주교 주례로 견진성사를 거행했다.

지난 달 둘째 주부터 8일간 보좌신부, 원장수녀, 이 세 실리아 수녀로부터 집중교육을 통해 견진성사를 충실히 준비해 온 성인 및 중고등부 학생 77명은 이날 이 주교의 안수와 크리스마 성유를 바름으로써 세례의 은총을 굳건하게 하는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

이 주교는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며 “견진성사를 통해 하느님을 내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는 믿음과 함께,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수도 준기재

● 쌍교동 성당 전례 담당자 교육



쌍교동 성당(주임=박종근 신부)은 지난 12월 5일(토) 오후 7시 30분에 전례분과(분과장=유재양)위원 및 봉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김지용 데레사 수녀(성 바오로복지병원)의 ‘하느님께 영광’이라는 주제의 전례교육을 실시했다. 김 수녀는 “사랑을 베풀시는 하느님 아버지, 은총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같이하는 전례가 이루어질 때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전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구장 이병호 주교의 사목교서와 공의회 문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날 교육은 교회 전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강인식 기자

성지순례

이집트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바티칸
출발일 : 2010년 1월 20일, 1월 22일,
1월 23일(10박11일) 매일 미사드립니다.
전일관광 조선(안토니오) 288-6666

유* 사랑 외과

유방·김상선 전문클리닉
원장 소 우 성(스테파노)
EMT 야외주차장 앞
☎(063)253-6075

군산YWCA부설 군산평화중고등학교(2년제)
-학생모집-(교과부인가학력인정)
대상 : 만16세이상 청소년 및 성인
원서접수 : 12월 15일~
2월 27일까지(신착순)
교장 정연택(베드로)
문의 : 063)462-2319(교무실)

쾌적한 입원실, 물리치료실
〈의산〉 한빛 정형외과
원장 : 김선규(라파엘), 이정미(글리라)
☎ 837-2222~4
(영등동 제일차 APT 옆 사거리)

● 본당 사회복지분과위원회·빈첸시오회원 1일 피정

지난 12월 6일(주일) 교구 사회사목국(국장=김희남 신부)은 본당 사회복지분과위원회와 빈첸시오회원을 위한 1일 피정을 나바위 피정의 집에서 가졌다. 이날 19개 본당에서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을 한해를 마무리 하며 본당의 행사와 사업, 내년도 사업과 행사 계획 등에 대해 정보 교환 시간을 가졌으며 사회사목국장 신부의 강의와 파견미사로 일정을 마쳤다.

|홍보국 정례

● 신태인 성당 레지오 마리애 연차 총 친목회

신태인 성당(주임=김봉술 신부) 원죄없이 임태되신 모후 꾸리아(단장=김영배)는 지난 12월 6일(주일) 연차 총 친목회를 열었다.

교중미사 후 성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12개 뿐레시디움 80여 명이 참석했다. 시작기도와 묵주기도 후 성서 완독상과 출석상, 평일미사상, 묵주기도상 등을 시상 했다.

김영배 단장은 “선교상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쉽다”며 “다음 연차 총 친목회 때에는 꼭 선교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봉술 주임신부는 “우리 성당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꾸리아가 더욱 열심히 하여 신자들을 이끌어 가는 단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선숙 기자

● 노송동 성당 레지오 마리애 연차 총 친목회

노송동 성당(주임=나춘성 신부)은 지난 12월 5일(토) 오후 5시 천사의 모후 꾸리아(단장=김종호), 자비의 모후 꾸리아(단장=이봉기) 주관으로 레지오 마리애 연차 총 친목회를 가졌다.

기도를 시작으로 각 뿐레시디움별로 준비한 노래, 연극 등 장기자랑으로 밝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친교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홍보국 정례

전북대병원 처방 조제전문

대 학 약 국

(전북대병원 신정문 앞)

☎(063)275-5700
FAX. (063)275-5760

젊은이들을 위한 꽃동네 성령파정

일시 : 2010.1.15(금) 오후 2시~1.17(주일) 오후 4시
내용 : 성령을 받아라!
대상 : 1) 성령파정회에 관심 있는 젊은이
2) 중등부
장소 : 음성 꽃동네 사랑의연수원 중강당
회비 : 일반원 / 문의 : 011-490-5345
*폐장되는 사진 접수 바랍니다.

김현성 가정의학과

통증크리닉 센터
신경치료 물리치료 전문
아간진료(9시)
김현성 이혜경(율리아)
010-678-0303, 278-7275
Fax : 278-2020
송천뜨란 채APT 후문앞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정시(나)/(다)군 모집

사회복지학부 40명
간호학과 20명
원서접수 : 12.19(토)~24(목)
문의 : 043-270-0100~1
<http://www.kkct.ac.kr>

‘순교 1번지’ 다운 신앙활동 · 복음전파 · 이웃사랑 모범

◎ 어머니 품속처럼 따스한 신앙의 터전

전주시 전동에 위치한 전동성당(주임=김용태 신부, 사목회장=유철종)은 전주에 최초로 들어선 서양식 건물이다. 고풍스런 교회 건물은 주변의 한옥마을, 경기전 등 전통 문화와 동·서양 만남의 장을 이루어 준다. 여행자 순례코스여서 관광객들 특히 중국, 일본, 대만 등지의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다. 김용태 주임신부는 성모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 외국인들을 보며 그들 마음에 하느님 사랑이 부어지길 기도한다. 어머니 품속처럼 따스하고 운치 있어 영화 촬영장, 결혼시즌이면 혼배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는 전동성당. 성당을 찾은 주말 오후,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친구들에 둘러싸여 문밖을 나서고 있었다. 금년 11월에 11건의 결혼 예식이 전동성당에서 치러졌다. 김 신부는 간접 선교의 터전이 된 성당을 더욱 잘 가꿔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한다. 불타는 하느님 사랑으로 망나니의 칼도 두렵지 않았던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의 순교 터 전동성당 앞마당의 아름드리 고목나무가 죽음을 이겨낸 순교자의 넋처럼 겨울바람 속에 우뚝 서 있다.

◎ 호남 교회의 모태…민주화 운동의 성지

전동 성당은 지난 1889년 봄, 소양면 대성동에 설립되어 초대 주임으로 보두네 신부(파리외방전교회, 대구교구)가 부임하였다. 윤지충, 권상연 순교 100주년이 되던 1891년에 현 위치에 성당 터전을 마련, 호남의 모태(母胎)본당이 되었다. 전동성당은 서울 명동 성당을 설계했던 프와넬 신부의 작품이다. 보두네 신부는 1908년 성전건축을 시작하였는데 주춧돌은 남문 밖 성벽의 돌을 가져다 썼으며 이는 순교현장의 피 묻은 돌들이었다. 신자들이 노력봉사는 했지만 돈이 없었기에 보두네 신부는 고국인 불란서에서 모금을 하여 성전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은 극히 검약하여 대구에서 부임할 당시 입었던 수단을 세상 떠날 때까지 입을 정도였다. 모든 시설을 완비하고 축성식을 가진 것은 1931년으로 공사기간이 23년이나 걸렸다. 1937년 전주교구가 한국 최초의 방인 자치교구로 설정되고 전동성당은 주교좌 성당(1937~57년)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민주화의 성지’로 도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받은 전동성당은 1981년 문광부로부터 국가 지정 사적 제 288호로 지정되었다. 작년에 본당 설립 120주년을 맞은 전동성당은 노후된 시설들을 보수 복원하면서 값진 신앙의 유산들을 소홀함 없이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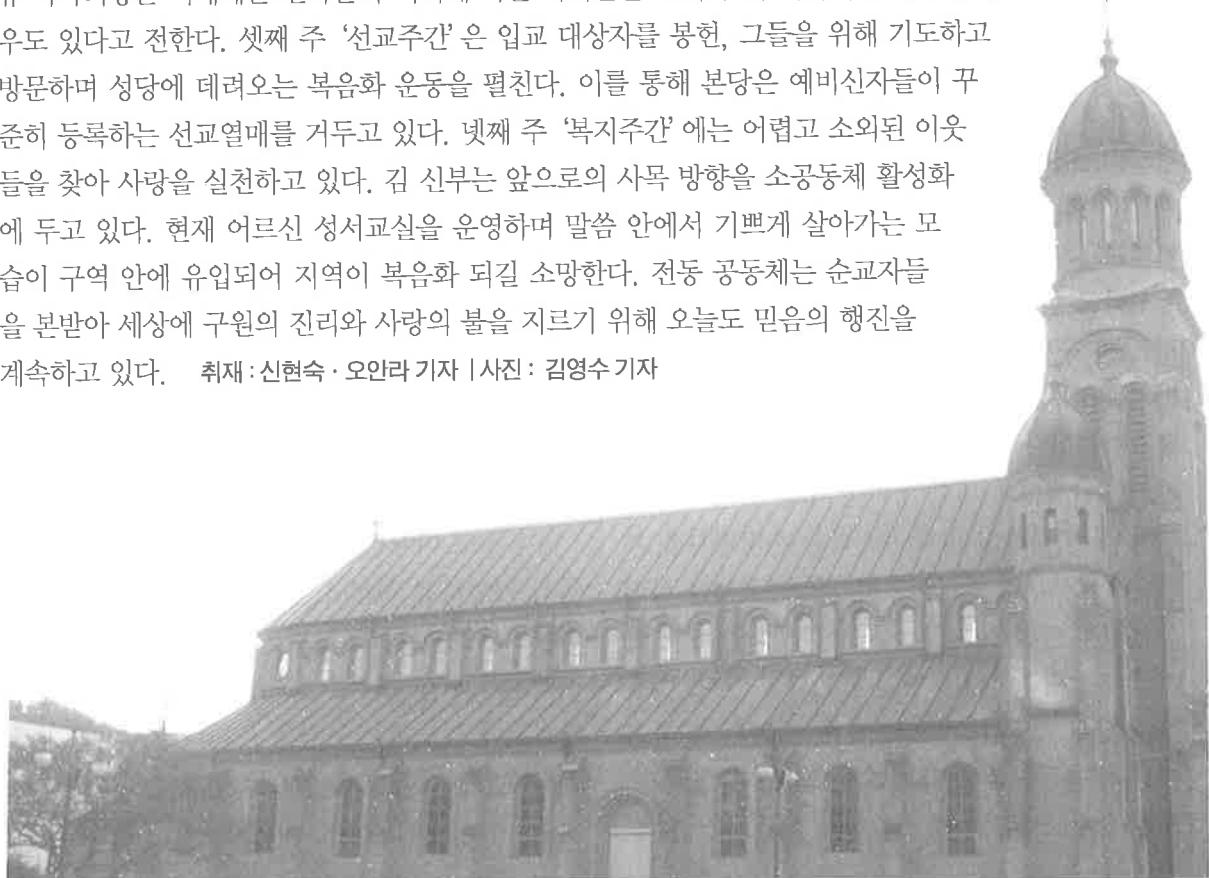
◎ 기적을 낳은 순교자들의 성혈(聖血)

‘순교 1번지’라는 자랑스러운 하늘나라 주소를 갖고 있는 전동성당. 성당이 자리 잡고 있는 이곳 ‘전주 풍남문 밖’은 윤지충과 권상연이 한국 천주교회 최초로 치명(致命) 순교한 곳이다. 아울러 호남의 사도 유향겸과 초기 전라도 교회의 지도급 인물들이 순교한 거룩한 땅이다. 고산 윤선도의 6대 손인 윤지충은 유교식 의례가 엄격히 지켜지던 조선 후기에 천주학에서 참 진리를 발견한 후에 조상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사르는 행동을 하였다. 당시의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임금과 부모를 저버린 폐륜적 행동으로 인식되어 윤지충과 권상연은 1791년 12월 8일 현 전동성당 자리에서 참수(斬首)되었다. 정조임금은 그들이 순교한지 9일 만에야 시체를 거두어 가도록 허락했는데, 12월 혹한에도 순교자들의 피는 응고되지 않고 뚝뚝 떨어졌다고 한다. 그 피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나병환자가 치유되는 등 많은 기적과 일화를 남겼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순교자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진정한 승자임을 일깨워 준다.

◎ 순교자 기념관 건립과 새 복음화 운동 전개

본당 공동체는 요즘 순교자 기념관 건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음을 증거하다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의 넋을 기리며 신앙의 유산을 자자손손 전하기 위함이다. 지난 10월에 순교자 기념관 건립 기공식을 가졌고 지금은 건축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다. 기념관 건립 모금 창구에는 스님, 외부인들도 찾아와 봉헌에 동참해 종교를 초월한 아름다운 모습도 있다. 순교영성이 바탕에 깔린 본당 신자들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신심을 소유하고 있다. 매일 있는 새벽미사에 많은 신자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짐작이 간다. 공동체는 새 복음화 운동으로 4가지의 큰 주제를 본당 사목에 반영하고 있다. 매월 첫째 주는 '성소주간'으로 하느님 백성들이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성찰하며 신앙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둘째 주 '가정주간'은 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례하고 독서와 기도도 함께 바치며 가정 복음화를 꾀한다. 유 사목회장은 이때에는 신자들이 외지에 사는 자녀들을 불러 함께 미사에 참례하는 경 우도 있다고 전한다. 셋째 주 '선교주간'은 입교 대상자를 봉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방문하며 성당에 데려오는 복음화 운동을 펼친다. 이를 통해 본당은 예비신자들이 꾸준히 등록하는 선교열매를 거두고 있다. 넷째 주 '복지주간'에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 신부는 앞으로의 사목 방향을 소공동체 활성화에 두고 있다. 현재 어르신 성서교실을 운영하며 말씀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이 구역 안에 유입되어 지역이 복음화 되길 소망한다. 전동 공동체는 순교자들을 본받아 세상에 구원의 진리와 사랑의 불을 지르기 위해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취재: 신현숙 · 오안라 기자 | 사진: 김영수 기자**



심층 취재로 알찬 소식 · 정보 제공...꼼꼼한 편집 지향

홍보부장인 이의송 마르도 니오 형제와 함께 김영신 바오로 주임 신부님께서 바치는 미사에 참례했다. 잘 정제된 전례에 교우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듯한 살아 움직이는 감동적인 미사였다.

2009년 11월 현재 263호를 맞는 월보 ‘늘 푸른 송천’은 본당 설립 시 함께 창간되었는데, 초대 주임신부인 김태윤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신설 본당의 효율적인 사목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한다. 처음에는 원고 받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본당 전체를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이상원 라파엘 형제가 그동안의 변화를 말한다.

제호도 창간호는 ‘송천월보’(1987년 9월6일 창간), 1996년 4월호(104)호부터 일 년 동안 ‘맑은 사람들의 이야기-열린 교회로’, 다시 ‘송천월보’, 2008년 11월부터 ‘늘 푸른 송천’으로 정했다고 한다. 이처럼 제호에서부터 변화와 발전을 추구했던 월보는 제작과정 중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자체 감수과정을 갖고 있다. 성경말씀이나 교회가 가르치는 정통교리, 교회법, 제 단체들에 대한 정확한 내용 등에 배치되면 수정을 한다고 한다. 또 각종 본당행사를 기획단계에서부터 행사이후까지 심층취재를 하여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교우들이 행사에 대해 잘 이해하고 협조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예를 들어 성서 백주간, 바오로 성년, 사제의 해 등을 매월 연재하였으며 홈페이지에서는 특별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한다.



편집인인 박병래 마르코 사목회장은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제작하여 쉬는 교우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데, 신입교우들이 교회를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 앓은 양을 찾고 어린 양을 기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욱이 본당 25년사를 편찬하는데 충실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한다. 편집 참여 표문숙 베로니카, 김은아 마리아 자매는 주님의 사업에 동참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활동하며 이를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아 기쁨과 보람을 느낀단다. 황태호 요한 형제는 본당 홈페이지에 대해 교우들 간의 소통을 통한 ‘온라인 신앙공동체-온라인 송천동 성당’을 표방하며 본당 및 공동체 소식, 천주교 정보 등을 제공, 하루 130명 이상이 방문하는 어디에 내놓아도 뛰지지 않는 홈페이지라고 자부했다. 장석조 스테파노 차장은 역대 임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그동안 쌓인 노하우, 바람, 의지 등이 단절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일이 시행착오 없이 잘 이루어진다고 역대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자, 김광중 아가비도 형제는 앞으로 발전을 위하여 항상 긴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신중한 제언을 한다.

교우들도 이제는 월보와 친숙하며, 주임신부님의 각별하신 신뢰와 지도신부이신 송현석 요한보스코 신부님의 지도, 사목회장님의 격려, 구역분과(부장 백선옥 글라라)의 협조 속에 본당발전에 일조하는 보람을 느낀다는 이의송 마르도니오 형제의 말을 끝으로 취재를 마쳤다.

취재 : 심연무 아オス딩(쌍백합 편집위원)

군장대학 사회복지과 기톨릭반 신입생 모집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소지한 세례를 받은 가톨릭 신자(예비신자 포함)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성직자 · 수도자
 - ② 가톨릭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 ③ 가톨릭 관련기관 근무자
 - ④ 일반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 ⑤ 사회복지관련 공인 봉사경력이 있는 자
 - ⑥ 기타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① 입학 원서 1부(소정 양식) ②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사본 1부
③ 본당 주임신부 추천서 1부(소정 양식)
④ 자기소개서(사회복지봉사경력 · 활동계획 등 A4 2매정도 자필로 작성)(소정 양식)
⑤ 전문대 졸업 또는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해당자에 한함) 출신대학 졸업(수료)증명서 1부
- 모집인원 : 30명
- 전형방법 : 서류전형(고등학교 성적+자기소개서 평가) 및 면접 전형
- 전형일정 : ① 원서 교부 및 접수(2009년 12월 14일~2010년 1월 15일)
 - ☞ 교부 방법 : 천주교 전주교구 홈페이지(www.jcatholic.or.kr)
또는 사회복지 가톨릭반
카페(<http://cafe.daum.net/idwelfare>)에서 다운로드
 - ☞ 접수 방법
 - 1)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우) 573-709 전북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608-8 군장대학 채왕석교수)
 - 2) 창구 접수 : 천주교 전주교구 사회사업국
- 면접 : 2010년 1월 16일 오전 10시(천주교 전주교구청)
- 합격자 발표 : 2010년 1월 19일(군장대학 홈페이지)
- 수업장소 : 군장대학 교내 강의실(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608-8)
- 수업방법 : ① 주 3회 수업(월 · 수 · 금 18:00-22:00) ② 원격(사이버) 교육
③ 자율학습
- 수업연한 : 2년(4학기)
- 장학특전 : - 성직자 · 수도자 (입학금+매학기 150만원 납부)
- 평신도<만학도(1980년 1월 1일 이전 출생) 또는 산업체근무자>
(2009학년도 등록금 기준 : 입학금+매학기 약 180만원 납부)
- 기타 : 최종 등록 인원이 20명 미만일 때에는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 주요 교과목

그리스도교 사회복지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상담 기술,
장애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캐어 기술, 보육학, 유아놀이지도, 청소년 활동론, 레크리에이션 등

▣ 졸업후 진출분야

○ 공무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건복지사무소(시범) 등) ○ 영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보육원) 및 아동/청소년 복지기관(보육교사, 아동 및 청소년 지도 분야) ○ 사회복지기관 및 각종 복지시설(여성복지, 노인복지, 가족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분야 등) ○ 4년제 대학 편입학 특전 : 사회복지(사업)학과 등

◎ 입학 지원 상담 ◎

- 군장대학 사회복지과 가톨릭반
 - 채왕석(베드로) 교수 : (063)450-8338/010-3657-6538
 - 오교성(미카엘) 교수 : (063)450-8313/011-637-8745
- 천주교 전주교구 사회사업국



○ 교구장 일정

- 주교 Communio
12월 14일(월)~15일(화)
- 신학교 사제양성과정 연수회
12월 17일(목)~19일(토) 광주기톨릭대학교
- 견진
12월 20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우전

○ 미사·행사·모임

- 제3차 지성인 성령쇄신 묵상회
1월 15일~17일(2박 3일)
장소 : 소양 해월리 피정의 집
회비 : 7만원<선착순 50명>
문의 : 287-2722, 010-5174-2241
- 교구 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군산 월례미사
12월 14일(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교정사목후원회 전주 월례미사
12월 14일(월) 오전 10시 30분 문정
- 가정성화 미사
12월 14일(월) 오전 11시 치명자산 성당
- 전북 도청 로사리오회 미사
12월 14일(월) 오후 6시 40분
-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4일(월) 오전 11시 교구청
- 교구 청소년교육국
자모회 정기총회 및 월례미사
12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 센터

**전동성당 부설
성심유치원 교사모집**
가톨릭 신자, 이력서 1통, 2급정교사
자격증 1통, 몬테소리교사자격증 1통
마감 : 12월 24일
접수 : 성심유치원 사무실
문의 : 284-8347
010-3118-0691

**예수의 소회승녀회
성소 모임**
일시 : 12월 20일(주일) 오후 2시
장소 : 광주 봉선동 수녀회 본원
참고 : 성소 상담 수시 가능
문의 : 062)673-9633
010-9250-5754

성모유치원 원아모집
교부 및 접수 : 12월 1일부터(선착순 마감)
대상 : 2004년 1월 1일~2007년
2월 28일까지(만3, 4, 5세)
준비서류 : 등본1통, 반명함사진 1장
문의 : 252-0384, 010-9457-0384
*인성교육·종교교육 / 유기농먹거리
종일반운영 / 저소득층 무상교육

- 이주사목 월례미사
12월 17일(목) 오후 7시 30분 센터
- 의산 하나님 회 마사
12월 20일(주일) 오후 2시 부송동
- 초남아성지 신심미사
레지오마리애. 구역, 단체
매일 오전 10시 30분(봉고15인승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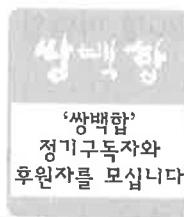
○ 교육·피정·연수

- 예비 교우들을 위한 1일 피정
12월 19일(토) 오전 10시 나바위 피정의 집
- 교구기자단 교육 및 모임
12월 19일(토) 오후 4시 교구청
- 전가대연 피정·정기총회
12월 19일(토)~20일(주일)
해월리 피정의 집
- 전주 가톨릭 신학원 파견후보자 일정
파견후보자 교육 :
1월 9일(토) 오전 10시 신학원
파견후보자 피정 :
1월 16일(토) 오후 2시~18(월)
나바위 피정의 집
파견미사
1월 19일(화) 오전 10시 30분 전동 성당

○ 기타

- 하늘향 노인 복지 센터 운영
방문 요양 / 주간 보호 / 단기 보호
차량 운행 / 의료 진료 / 물리 치료
장소 : 정읍시 신태인읍 신대인 성당 옆
문의 : 571-9009, 1800

새교구청 신축기금 현황
90% 이상 남부 본당 : 효자동, 창인동
80% 이상 남부 본당 : 송학동, 연기동
70% 이상 남부 본당 : 평화동, 소룡동
60% 이상 남부 본당 : 전동
50% 이하 남부 본당 : 팔봉



성소 모임
일시 : 12월 20일 오후 2시
(매월 셋째주일)
장소 : 대전 가톨릭문화회관 2층 경당
문의 : 011-9319-1690
www.missionok.com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가소비녀회 성소자 모임
일시 : 12월 20일(셋째주일)
오후 2시
장소 : 비아 분원
문의 : 010-4910-4088
062-953-4479

대림·성탄 피정 '기난의 노래'
일시 : 2차 성탄피정(12월 26~27일)
대상 : 34세 미만의 미혼여성
장소 : 예수성심시녀회 부산관구
소화분원
문의 : 010-3526-1208
ejrina@hanmail.net

**충주성심학교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가톨릭청각장애특수학교)
*대상 :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연우이부와 초등부는 충주와 청주 두곳 운영
*체육에 소질이 있는 중고등부 학생의
야구부 입단 희망
*문의 : (043) 847-3230

● 원평성당 사무원 모집

자격 : 세례받은지 3년이상 된자,
컴퓨터활용 및 엑셀가능자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직사본
제출처 : 543-0880 원평성당

● 가정사목국 전화 상담

가정 문제 및 신앙문제 등을 전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금(휴일 쉬) 오전 9:30~12:30,
오후 1:30~4:30
문의 : 281-0142

● 전례꽃꽂이 연구회

12월 17일(목) 오후 2시 교구청 3층
*특강과 미사 있습니다.

● 감사드립니다

무의탁 독거노인돕기 '사랑나눔 음악회'(11월 28일)에 함께 해주신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 신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주교구 무의탁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사목국장 김희남 신부 올림-

● 고한 성당 부설 흑빛 청소년 문화센터 안내

폐광지역 아동복지와 청소년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설립 되었습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안에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된 복사단 거울 캠프, 가족 피정 등의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폐광 지역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향을 지닌 분들의 자원공연도 환영합니다.

이용 및 공연 문의 : 033-591-1271

청소년 교육국 직원 모집

분야 : 청소년 교육국 간사

자격 : 1979년 1월 1일이후 출생자로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 소지자, 컴퓨터 활용가능자, 레크리에이션, 일러스트 기능자 우대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 등본, 세례증명서, 자격증 사본,
본당신부님추천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접수기간 : 12월 8일(화)~15일(화) 오후 5시
문의 : 285-0041, 011-9644-6946

2010년 인동 가톨릭상지대학 신입생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전문대학
정시모집 1차 : 12,18(금)~2010.1.7(목)
모집학과 안내 : 대학홈페이지 참조
<http://www.csj.ac.kr>
입시문의 : 입시홍보처 054)851-3021~2
FAX : 054)851-3009

**의료인력 양성의 산실
부산가톨릭대학교**
2010학년도 정시 (기다)군 모집
접수기간 : 12월 19일(토)~24일(목)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cup.ac.kr) 참조

▶ 이 공연! ◀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의 '천상 탄일' 150주년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선포한 '사제의 해' 기념 공연

창작 연극 <마음을 주었습니다>에 초대합니다

사도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무대에 올려지는 가톨릭 창작 연극 <마음을 주었습니다>는 '사제의 해'를 기념해 사제들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공연입니다. 이 연극은 신자들의 도덕적 잣대에 의해 비춰지는 사제의 모습이 아닌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들의 고충과 아픔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연극을 통해 신자들 역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의 삶과 신앙을 쇄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제들과 함께 하느님께 가깝게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창작 연극 <마음을 주었습니다>는 하느님과 사제, 사람과 사제, 신자인 나와 사제의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걱정 수단의 사제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사제를 위해서 기도와 마음을 선물하십시오. 교구 교우님들을 초대합니다.



일 시 : 2009년 12월 20일(주일) 오후 5시

장 소 : 신태인 성당(063-571-8201) * 입장료(무료) : 본당에서 후원합니다.

시 간 : 110분 / 연 출 : 지성구

출 연 : 우기홍, 김은희, 하현주, 김효남, 황성윤, 권윤구

주 최 : 가톨릭 문화기획 IMD

다음 카페 : 마음을 주었습니다. cafe.daum.net/imd1

청소년,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천호로 오르는 길

'아름다운 순례길'을 통한 종교간 대화의 뜻을 잊고, 가족, 이웃, 사회와의 평화를 위해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비롯해 1,000여 명이 넘는 많은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이 길을 나섰습니다.

■ 일시 : 2009년 12월 18일-19일 (1박2일)

■ 여정 :

1코스 : 한옥마을 - 송광사 (1박) - 천호성지

2코스 : 미륵사지 - 나바위 (1박) - 천호성지

3코스 : 진산 - 되재 (1박) - 천호성지

■ 천호에서의 일정 : 12월 19일 오후 4시-7시

■ 문의 : 063-232-5000 사단법인 한국순례문화연구원

